

傳統을 보는 눈

同姓同本 不婚制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아니며
사대주의 조선왕조때 중국에서
받아들인 제도이다

이 태 영

(1981. 6 17 조선일보 아침논단)

전통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의 옛 문화와 전통에 학구적으로 몰두하여 그 정신을 찾아내려 하고 있음은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하여 마음 든든한 일이다.

전통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두 가지 측면을 갖게 된다. 전통은 한 민족, 한 사회가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발전을 가로막는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전통에는 우선 보수(保守)의 요구가 들어 있으므로 때로는 애매함과 비합리성, 받아들이기 힘든 무지몽매함 등이 '전통'이란 이름을 쓰고 보수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 때 전통은 진보의 적이 된다.

전통이란 인간이 살아오면서, 또한 보다 낫게 살려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쌓아 올린 문화유산이기에 인간이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정신이 있는 동시에 인간의 잘못, 인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무턱대고 배척할 것도 아니요,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도 아닌 것이다. 버려야 할 전통과 지켜야 할 전통을 이성적으로 판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 나가는 것이 문화 민족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희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신화적 사상에 대해 도전적인 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희랍 민족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화적 사상 속에서 성장하면서 조상들이 신을 위해 지었던 시를 읽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성이 깨어나고 철학적 정신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내부에 형성된 신화적 사상에 회의를 품고 그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소크라테스는 전통 속에 잘못된 요소를 부정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살려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합리성의 전통, 즉 이성을 높이고 이성을 따르며 이성으로 남을 설득하는 전통이었다.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크라

데스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전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면,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요소들을 살려 나가면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전통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기준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 우선 그 전통이 우리의 생활을 밝게, 바르게, 정의롭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과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냐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기준에 위배되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해서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은 항상 다음 세대에 의해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민족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여기에 전통에 대한 새롭고 깊은 인식과 재생이 요구된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다. 유교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생활의 틀을 잡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유교가 우리 문화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당파 싸움을 조장하여 많은 백성에게 고통과 멍에가 되었음을 알고 있다. 유교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공도 컸으나 허물도 면키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고수 자만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마음의 폐쇄는 진보와 창조를 저해하는 고질이다. 유교 문화가 우리의 전통이라면 우리는 유교의 중심사상인 덕(德)과 인(仁)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진실로 뜻 있는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이란 습관의 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절대적 부동불변하는 전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선대에서는 부모가 물려준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지켜 나가는 전통을 지켰으며, 상투를 잘리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우리 세대에 와서는 전통으로서의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선대의 뽕양속을 버렸다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통의 가변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조상대대로 지켜 내려온 뽕양속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누구를 위주로 한 생활 속에서 지켜온 뽕양속이었던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자의 입장에서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은 전통이여자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불편하고 자기 비하적인 전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인륜'에 합당한 전통이지만, 가지지 못하고 눌린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전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전통이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가장(家長)과 가족 등 각기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전체의 것'이 되지 못할 때 뽕양속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존 F 케네디는 "우리는 역사의 노예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주인인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다시 일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볼 때 캐나다의 그 명언이 다시금 절실하게 떠오른다. 우리의 조상들이 동성동본 금혼제를 지켜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조상들의 미풍양속'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을 앞세운 전근대적인 고집에 불과하다.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동성동본 불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아니며, 중국의 문물을 숭배하는 풍조가 한창 고조되었던 조선왕조 때에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제도이다. 그 발상지인 중국에서조차 이미 60여년 전에 폐기해 버린 제도를 우리만이 '대대로 내려온 미풍양속'이라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성(性)을 지닌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못된다고 본다. 동성동본 금혼제는 오직 남계혈통을 본위로 한 제도였으며 고대 씨족사회에서는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일족이 거의 근친(近親)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친혼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남녀들이 수천 수백년 전의 조상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허가받지 못하여 술한 비극을 겪고 목숨까지 버리고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슬픈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임금이 성(姓)을 내린 일이 적지 않았으며, 양반이 되기 위해 성을 사는 일까지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술한 고아들이 고아원 원장의 성과 본을 따라 호적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성과 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유림(儒林)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근친혼이 성행하여 인륜, 도의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지나친 걱정들을 하고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불혼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근친혼을 막고 있으며, 또한 인륜이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근친혼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된다면 외국에서 일반화된 '부계 8촌, 모계 4촌'이 우리의 국민 감정에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면 10촌, 혹은 그 이상으로 불혼 범위를 확대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현재도 모계로는 4촌만 넘으면 혼인할 수 있으므로 동성동본 금혼제는 결국 아버지쪽 혈통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질 때 혈통은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똑같이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李)씨라고 해도 '2분의 1 이씨'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계산해 간다면 3대에는 '8분의 1', 10대에는 '1천 24분의 1', 20대에는 '1백4만8천5백76분의 1', 30대에는 '10억7천3백74만1천8백24분의 1' 밖에는 이씨 조상의 피가 남아 있지 않아 혈통이 거의 배제된 관념적인 이씨 가계가 된다고 한다. 전통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지켜내려온 것이기에 우리는 전통이란 말 자체에 벌써 정이 움직이게 됨을 실감하곤 한다. 전통이란 말 앞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쁜 전통을 버리고 좋은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들의 할 일이며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다.